첫 방한 캉쎄르 린포체, 부산서 대중법문

1월 2일 홍법사서 불자들 만나
탐진치 삼독과 극복 방안 제시
비유·이야기 곁들여 이해 도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축복"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중법문 하는 캉쎄르 린포체.


홍법사에서 봉행된 캉쎄르 린포체 특별 초청법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제4대 종파 중 가장 큰 법맥인 겔룩빠 전승의 제8대 환생자 캉쎄르 린포체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불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도(佛都) 부산에서 대중법문을 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캉쎄르 린포체는 1월 2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봉행된 린포체 초청 특별법회에서 400여 대중과 만났다. 홍법사의 정기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대신 마련된 법석에서 캉쎄르 린포체는 얼마 전 출간한 저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법에 나섰다.

캉쎄르 린포체는 1시간이 넘는 법문을 통해 탐·진·치 삼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린포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픈 것은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집착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집착은 자신을 위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린포체는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를 활용했다. 집착을 설명할 때는 '복권'을 예로 들었다. 린포체는 "100만달러 복권이 당첨됐을 때의 기쁨, 반대로 당첨된 복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의 크기는 왜 똑같지 않고 잃어버린 슬픔이 더 큰지 떠올려보라"며 "행복감보다 불행감이 더 큰 이유가 집착 때문이다. 100만달러에 대한 집착이 큰 불행감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포체는 하나의 일화를 더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린포체는 "어느 나라의 왕이 한 농부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가 걸은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신이 난 농부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지만 너무 멀리간 탓에 성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농부를 죽인 건 조금만 더 갖고 싶은 욕심"이라고 말했다.

린포체는 이어 "농부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도 집착과 탐욕은 갖지 말라고 하셨다"고 힘줘 말했다.

린포체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로 △자신이 가진 좋은 점과 그로 인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아침저녁 짧은 명상 실천 △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다.

린포체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조만간,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는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나 슬픔,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캉쎄르 린포체는 제8대 환생자다. 제7대 린포체는 지금의 달라이라마 환생자를 찾아낸 세 명의 수행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린포체는 지난해 7월 달라이라마로부터 600년 전통의 규토 승원의 부승원장인 라마움제로 임명됐다.

락서암, 중·고교생 18명 장학금 수여

제5회 장학금 전달식…총 1270만원 지원

청소년과 학생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대웅전에서 제5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사진〉



전달식은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법화종 원로의원 진파 대종사, 부산종무원장 법경 스님, 총무국장 용암 스님, 감찰국장 지오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성림 스님, 춘제 스님, 혜연 스님, 법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락서암은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대학생 9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4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했다. 1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총 1270만원이다.

주지 수월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이제는 군대를 다녀왔다고 인사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여러분은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지내야 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원하는 것은 언젠간 이루어지게 돼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등공신이 되는 길"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원로의원 진파 대종사는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복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락서암 주지스님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공덕으로 세상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시라"고 법문했다.

또한 수월 스님은 장학사업을 후원하는 한빛마음회 임원과 보현회 임원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치하했다. 한빛마음회는 이전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신도들이 수월 스님의 장학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지난해 6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학금 후원단체다.

한편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은 평소 인재불사를 위한 수월 스님의 원력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실상문학상 2대 운영이사장에 심산 스님

혜총 대종사 증명법사 추대
"함께한 족적 영원히 기록돼"
문학상 대상 차달숙 · 김윤선


실상문학상 수상자들과 혜총 대종사, 심산 스님, 차정연 협회장.

불교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산불교계 문학인 양성에 기여해온 실상문학상 제2대 운영이사장에 심산 스님이 취임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는 지난해 12월 28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이·취임식 및 제26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88년 8월 원광 스님이 창립을 주도해 탄생한 부산불교문인협회는 그해 12월 〈실상문학〉 창간호를 발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가 1998년 부산지역 문인들을 지원하고 문학 발전을 위해 실상문학상을 제정한 뒤 초대 운영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를 통해 25년간 200여 명의 문인에게 실상문학상을 수여하고 3억원이 넘는 상금을 지원했다. 혜총 대종사는 이 같은 활동을 후학인 심산 스님에게 맡긴 것이다.

이날 능지 스님과 함께 부산불교문인협회 증명법사로 추대된 혜총 대종사는 "실상문학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지로 성장한 데는 회원 여러분의 탁마와 고뇌의 시간이 응축돼 만들어진 결과"라며 "소승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족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2대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한 심산 스님은 "그동안 문인협회를 이끌고 지도해주신 혜총 큰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차정연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며 "그동안 큰스님께서 이루신 성과를 바탕으로 임원진, 회원과 함께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제26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차달숙 시인과 김윤선 수필가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다. 차달숙 시인은 1999년 수필, 2008년 시, 2013년 시조 시인으로 등단해 부산문학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문학상 대상, 한국국보문학 대상 등을 수상하고 시집 〈별들에게 묻다〉 〈회화나무〉 등을 펴냈다. 김윤선 수필가는 2007년 〈수필시대〉로 등단해 동구문화예술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제7회 사계 김장생 문학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고 다수의 작품을 냈다.

윤호섭 기자

늘기쁜마을, 사회복지사례 발표회 개최

12월 27일 연구원 설립 일환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환희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사회복지연구원 설립 일환으로 마련된 발표회는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비·지혜·원력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전파하기 위해 열렸다.

발표회에서 윤기혁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사회복지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법인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류우진 환희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코로나19 대응 사례', 손은주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개입 사례', 김호정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독거남성어르신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나은미 두송지역자활센터 담당자가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25년 전 첫 걸음을 내딛은 늘기쁜마을이 어느덧 청년이 됐다. 여러분 노력 덕분에 시설과 직원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을 인정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탄탄하게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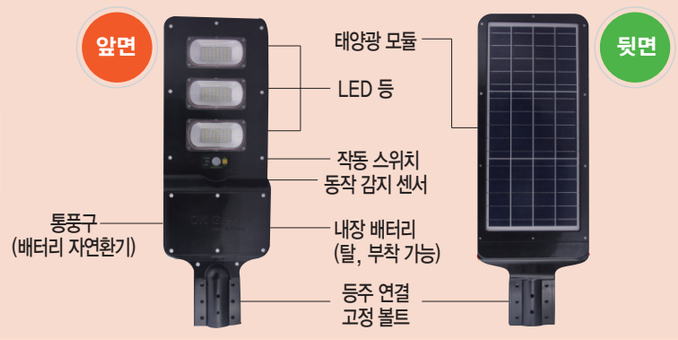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